

가정집 무인관리 원장직인 골프프로로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핑 나이나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관동 (명동동원명IC 영수순 브론즈 개시)
- 무전시 9월 이후 특별요금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ashy.co.kr 0801-320-7700



## 전남 전국체전 D-10

- 올림픽 스타 총출동



수영 박태환

유도 최민호

양궁 임동현·박경모·이창환

사격 진중오

양궁 주현정·윤옥희·박성현

배드민턴 이용대·이효정

여수 등지에서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전(10월 6~10일)에는 베이징올림픽에서 온 국민을 열광케 했던 메달 '영웅'들이 고향을 위해 대거 참가해 다시 한 번 감동을 선사한다.

'금빛 왕크의 사나이' 이용대(전남)는 배드민턴 단체전과 개인복식에 나서 두 개의 금메달을 고향에 선물할 계획이다.

올림픽에서는 혼합복식에 나섰

이창환은 경남 소속으로 금 활 시위를 당긴다.

'한관승의 사나이' 최민호(제주)는 이번 체전에서 한 체급을 올린 66kg급 이하에 출전해 금메달을 노린다.

최민호는 체급을 올렸지만 그동안 훈련과정에서 한 체급 위의 선수들과 많이 상대해 봤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내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시아인은 불가능하다는 수영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적인 수영

## '베이징 투혼' 다시 한번

지만 체전에서는 남자일반 복식에서 메달을 노린다.

비록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걸진 못했지만 광주·전남에 확실한 금메달을 안겨줄 선수들을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흥미거리다.

체조 김승일·김대은(전남도청)은 국내 무대에서 단연 금메달 0순위며, 올해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개인종합에서 한국 선수 최초 우승을 일군 최복음(광양시청)은 남자일반 2인조와 5인조에서 금메달 획득에 힘을 보탠다.

올림픽에서 세계의 벽을 확인했던 광주 출신 김덕현은 이번 체전에서 자신의 기록 향상에 도전한다.

멀리뛰기와 자신의 주종목인 세단뛰기에서 한국신기록과 아시아 기록을 작성, 세계기록과의 간격을 좁힌다는 계획이다.

20년만에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며 세계 스포츠계에 이름을 알린 최준상(광주)도 마장마술에서 국내에는 거의 경쟁자가 없어 금메달이 유력하다.

탁구 남자 단체 동메달리스트 윤재영(광주)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지 못한 한 풀이에 나선다.

양궁 단체전 금메달의 주역들은 이번 체전에서는 모두 자신의 고향을 위해 활 시위를 당긴다.

전남 출신 주현정은 안타깝게 현대오



역도 장미란

스타로 떠오른 '국민영웅' 박태환(서울)은 자유형 50m와 100m에 출전한다. 금메달을 때론 상상이지만 메달보다는 자신의 기록 단축에 도전할 계획이다.

박태환은 최근 공식행사를 자제하며 웨이트트레이닝을 통해 본격적인 몸만들기에 들어가 전국체전에서 빛나는 역영이 기대된다.

3개의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출전 선수들과 현격한 기량차이를 보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장미란(경기)은 75kg급 이상에 출전. 또 다시 신기록에 도전한다.

이외에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중오는 강원대표로, 이용대와 짝을 이뤄 금메달을 따냈던 배드민턴 이효정(여)은 부산대표로 각각 출전한다.

태권도 4체급 석권에 빛나는 태권도의 스타들도 체전에 나서 황경선과 차동민이 서울, 손태진이 울산대표로 금빛 받침대를 뽐내게 된다. 임수정(서울)은 금메달리스트중 유일하게 이번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않는다.

아쉽게 결승에서 1점차로 금메달을 내준 펜싱 여자일반 남현희(서울)는 여자 플러레에서 올림픽에서 놓친 금메달을 노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이용대 금 '0 순위'

장미란 다시 기록 도전

박태환도 기록단축 기대

비스 소속으로 올산을 위해 뛰고, 윤옥희는 경북, 박성현은 전북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남자의 임동현은 충북, 박경모는 인천,

## 박주영 잘 뛰었는데...

(AS 모나코)

### 릴전 풀타임 출전 불구 공격포인트 기록 못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AS모나코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주영(23)이 4경기 연속 출전(컵 대회 1경기 포함)했지만 기대했던 골 소식을 전하지는 못했다.

박주영은 29일(한국시간) 새벽 모나코 루이 II 세 스타디움에서 끝난 릴OSC와 2008-2009 정규리그 7라운드 홈 경기에 프레데릭 니마니와 투플 공격수로 선발출전해 전·후반 90분을 풀타임으로 뛰었지만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AS모나코는 후반 24분 요한 카바예와 후반 42분 루도비치 오브리나에게 연속 골을 내주며 0-2로 패했다.

비록 팀은 졌지만 박주영은 지난 6라운드에 이어 정규리그 두 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면서 효과적인 패스와 과감한 슈팅 시도로 모나코의 주전 공격수로서 손색없는 활약을 보여줬다.

특히 후반 19분에는 프랑스 무대 데뷔 이후 처음으로 프리킥을 때렸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으며 아쉬움을 남겼다.

전반 9분 투플 파트너 니마니의 왼쪽 크로스에 이은 박주영의 헤딩 시도로 공격의 포문을 연 AS모나코는 전반 14분에도 전방으로 쇄도하는 박주영의 머리를 향해 볼을 투입했지만 골과는 거리가 멀었다.

AS모나코는 후반 24분 역수에 나선 릴의 카바예에게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선제 결승골을 내주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선제골을 내준 뒤 급해진 AS모나코는 후반 39분 은콜로의 패스를 받은 박주영이 골키퍼와 맞서는 상황을 연출했지만 슈트로 연결하지는 못했다.

AS모나코는 후반 42분 결승골의 주인공 카바예의 패스를 받은 오브리나에게 추가골을 허용하면서 0-2로 완패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AS모나코의 박주영(사진 왼쪽)이 28일 모나코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릴OSC와의 경기에서 프랑크 베리아와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 앤서니 김 아쉬운 3위...비에가스 우승

#### PGA 투어 챔피언십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사실상 마감하는 투어챔피언십 우승컵을 안고 모국행 비행기에 오르려던 재미동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의 꿈이 단 1타가 모자라 무산됐다.

앤서니 김은 29일(한국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이스트레이크골프장(파70·7천 154야드)에서 열린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69타를 쳐 최종합계 6언더파 274타로 공동 3위에 그쳤다.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와 연장전을 벌여 우승컵과 상금 126만달러, 그리고 페덱스컵 보너스 300만달러를 한꺼번에 챙긴 카밀로 비에가스(콜롬비아·사진)에 딱 1타가 모자랐다.



3타차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앤서니 김은 3번홀(파3), 11번홀(파3)에서 버디를 잡아 내며 한때 2타차 단독 선두를 달리기도 했지만 14번홀(파4)에서 잃은 1타를 끝내 만회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 PGA 투어에서 두차례 우승하고 라이더컵에서 맹활약을 벌인 데 이어 투어챔피언십에서도 나흘 내내 우승 경쟁을 펼쳐 앞으로 타이거 우즈(미국)에 맞설 선수라는 인상을 심었다.

### 박지성 내달 1일 출격 대비

#### 챔피언스 리그 올보르전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꿈의 무대'에서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박지성이 다음 달 1일(한국시간) 오전 3시 45분 덴마크 올보르에서 열리는 2008-200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E조 조별리그 2차전인 올보르와 원정경기를 앞두고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시즌 직전 무릎 통증 여파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북한과 1차전 한국 대표팀에 차출되지 않았던 박지성은 견제를 과시하며 지난 24일 미들즈브러와 칼링컵에 빠진 걸 제외하곤 3경기 연속 선발로 뛰었다.

지난 18일 비아 레알(스페인)과 챔피언스리그 1차전, 22일 첼시와 정규리그에선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후반에 교체됐으나 28일 불턴 원더러스전에서 올 시즌 처음 풀타임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 오초아 시즌 7번째 우승...김송희 4위

#### LPGA 나비스타 클래식

한동안 숨을 죽였던 '골프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사진)가 시즌 일곱번째 우승컵을 수확했다. 오초아는 29일(한국시간) 앨라배마주 프라트빌 RTJ골프클럽(파72·6천571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나비스타클래식 4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크리스티 커(미국), 캔디 쿡(대만)과 15언더파 273타로 동타를 만든 뒤 연장 두번째 홀에서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상반기에만 6승을 올린 오초아는 5월 사이베스 클래식 이후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하다 4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LPGA 투어 통산 24승을 기록한 오초아는 우승 상금 21만달러를 보태 시즌 상금 259만달러로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김송희(20·할라코리아)도 마지막 날 3언더파 69타를 쳐 우승 경쟁을 펼쳤지만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1타가 모자라 연장전에 합류할 기회를 잡지 못해 공동 4위에 머물렀다.

#### 김두현 무릎 부상 정밀 검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두현(26·웨스트브로미치 앨비언)이 무릎 부상 부위에 대한 정밀 검진을 받는다.

김두현의 국내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신지훈 하우스포츠 총괄이사는 29일 김두현이 현지에서 구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으로 부상 정도를 확인한다고 전했다.

김두현은 지난 27일 밤 2008-2009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미들즈브러와 원정경기에서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지만 경기 시작 1분도 안돼 그라운드에서 쓰러진 뒤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들것에 실려나갔다.